

# 말린 꽃차의 시장확대와 안전문제

하노이지사

## 말린 꽃차 트렌드, 꽃을 마시다

- 베트남 내 음료시장 트렌드는 보존제와 인공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자연주의 음료 및 건강음료를 선호하는 추세다.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소비자들이 기존의 자극적인 맛과 향, 색상 대신 식품 안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.
-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뜨거운 물에 찻잎을 우려 마시는 등 차 문화가 발달한 국가로서, 최근에는 기존의 녹차 등 전통차 이외에도 말린 꽃차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.
- 슈퍼에서는 다양한 말린 꽃차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으며, 카페에서도 꽃차가 커피나 주스, 타 음료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.

## 꽃차의 유통과 가격

- 베트남에서 유통·판매되는 말린 꽃차의 종류로는 장미차, 국화차, 연꽃차 등이 있으며 가격은 kg당 35~80만 동 (약 16,900~38,600원) 정도이다. 보통은 1kg을 구매하면 두고두고 몇 달간 음용할 수 있다.
- 말린 꽃차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대다수이며, 일본, 불가리, 필리핀 등 타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팔고되고 있다.



## 말린 꽃차의 위생문제

- 베트남에서 말린 꽃차는 생산과정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. 우선 품질 검사가 어려우며 몇 백 kg 단위로 수입된 후에 국내에서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 및 상표만 붙여 판매하면서 국내산 상품으로 둔갑되고, 이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. 그래서 식품 안전위생에 관한 위험이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다.
- 말린 꽃차에서 발견되는 곰팡이와 잔여 살충제 등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, 설사 복통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.

## 안전에 믿음 주는 꽃차 수출로를 모색해야

- 말린 꽃차에 대한 시장수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시장에 없는 종류의 한국산 꽃차 제품의 진출을 고려해볼 만하다.
- 우선적으로 말린 꽃차의 제품군이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식품안전위생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안심을 줄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.
- 또한 카페에서 말린 꽃차가 고가에 팔리는 점을 이용하여 주요 소비지를 중심으로 타 국가에 없는 한국산 꽃차 종류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.